

데스크 시각



정 후 식 편집부국장

‘허송세월’이라는 말이 광주·전남 관가에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다. 신문 제목에도 대문짝만하게 등장하곤 했다. 주민의...

‘허송세월’이라는 말이 광주·전남 관가에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다. 신문 제목에도 대문짝만하게 등장하곤 했다. 주민의...

협량(狹量)의 자치에서 상생의 협치로

양 시·도에 관련된 광역적인 시책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화합과 협력보다 갈등과 대립으로 접철된 3년이었다. 민선 2기 고재유 시장과 허경만 지사 시절에는 잠시 해빙 무드가 조성됐다. 광역행정협의회를 열어 시·도 분리 이후 10여년간 난항을 겪던 현안들을 공동 추진...

‘긴 갈등 짧은 협력’ 광주·전남

하지만 협력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민선 3기 전반기에는 ‘딱딱(한) 세월’이라는 신조어가 지역 정치권에 나돌았다. 박광태 시장과 박태영 지사의 영문 성(Park)을 딴 비유였다. 시·도가 세계박람회 유치, 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 경륜장 유치, 국립문화재연구소 설치 등 4대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는데 대한 성토가 담긴 것이었다. 지난 6월30일 나란히 퇴임한 강은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가 이끌어온 민선 5기 광주·전남 광역행정도 불협화음의 연속이었다. 공항 문제나 영산강사업, 무등산 개발, 5·18역사외국 대제 등을 놓고 잇따라...

보다는 애써 ‘외면하기’가 대체를 이뤘다. 불씨를 누가 제곡했건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이는 재선을 노렸던 강 시장의 득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게 틀림없다. (박 지사 3선 연임을 다해 상관없었겠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역행정사에서 협력의 가장 원활하게 이뤄졌던 시기는 아마도 민선 3기 후반부터 민선 4기까지였을 것이다. 그 상징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다. 박광태 시장과 박준영 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시·도가 공동으로 인접지역인 나주에 16개 이전기관을 통째로 유치해 미래 성장거점을 마련했다. 이는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와 이를 이끌어낸 두 단체장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과정에서도 상대지역 시설을 활용키로 하는 등 힘을 보탤 때 큰 양보와 배려가 오갔던 시절이다.

‘혁신도시 정신’으로 돌아가자

민선 6기 출범에 맞춰 지방자치 20년째를 맞는 시·도의 광역행정사를 되돌아보는 이유는 지금 광주·전남이 살길은 협력과 상생뿐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및 예산 확대 속에서 갈수록 위축되는 호남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하면 이는 엄연한 현실이다. ‘사람중심 생명도시, 더불어 사는 광주’를 정책 비전으로 내세워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윤창현 광주시장이나 ‘행동하는 혁신 도시사’를 역설하며 활력과 매력, 온정이 넘치는 전남 만들기에 나선 이낙연 전남지사의 취임으로 시정과 도정은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윤 시장과 이 지사 모두 광주·전남의 정책공조와 공동발전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 시절부터 신(新)영산강시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빛가람혁신도시, 무안공항 활성화 등 상생을 위한 7대 공동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언론인터뷰에서 ‘혁신도시 정신’을 강조하며 “윤 시장을 자주 만나 ‘윤·이 나는’ ‘이·윤이 나는’ 광주·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은 한 뿌리다.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이젠 지역이거주의에 기반한 협량(狹量)의 자치를 극복해야 한다. 상생은 힘이 세다. 시·도의 협치(協治)로 지역 경쟁력과 행정의 효율성, 규모의 경제효과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까지 끌어올리는 민선 6기를 고대한다.

은편칼럼



김 창 균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카프카의 소설 ‘가장의 근심’에 등장하는 ‘오드라텍’의 정체가 궁금했다. 언뜻 보기에 별 모양을 한 납작한 실뿔처럼 생긴 그것은 몇 달 동안 안보이다가도 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을 걸어도 좀처럼 대답하지 않던 이름을 물으면 “오드라텍이요.”라고 대답하고, “어디에 사니?”라고 물으면 “아무 데나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다.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지만, ‘내가 죽은 후까지도 살아있으리라는 상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다. 손창섭은 1958년 발표한 소설 ‘인어인간’에서 부조리한 전후(戰後)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삶에 대한 적극적인 지를 상실한 무기력한 사람들을 ‘인어인간’이라 칭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 우리 사회는 새로운 ‘인어(剩餘)’들이 둘러싸여 있다. 넘치는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노동 분배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인어를 자처하거나 상대를 인어로 비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8세기 말의 산업혁명은 장인적인 육체노동을 분해하여 기계에 넘기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노동 자체를 탈속권화하고 단순화했다. 이제 작업의 새로운 산업혁명은 육체노동에 이어 정신노동을 기계화하고 있다. 문화비평가 최태섭은 ‘인어사회’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리라 믿었지만, 현실은 노동의 양극화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과거 10명이 할 일을 혼자 떠맡게 된 한 사람이 과로로 죽어가는 동안 다른 9명은 손가락을 빨고 있는, 누군가가 과로로 쓰러질 때만 나머지 9명 중 1명에게 과로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인어사회라고 말한다. 문제는 과학의 발전이 인어의 문제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는 싱클레리드 이론으로 유명한 레이 커즈와일은 1998년까지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길 거라 예측했

잉여(剩餘)에 대한 단상(斷想)

는데, 1년 앞서 IBM의 딥블루가 실현하였다. 그는 2029년까지 컴퓨터가 인간 지능을 추월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앞으로 불과 15년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워싱턴포스트가 뽑은 ‘로봇이 대체할 직종 8가지’를 보면 눈에 띄는 직업이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로 트럭 운전사가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의료 생산과 물류·유통 전반에 로봇·IT 자동화가 확산 되기에 의료 판매자를 위한 직군으로 좁아졌다. 낮은 수준의 연구 활동을 하는 연구원들도 위험 직군으로 분류되었는데, 그 근거로 혈액 샘플을 분류하고 색인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을 예로 들었다. 최태섭은 ‘인어사회’의 글머리에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대사를 인용하였다. “대학 못 가면 인어인간이야, 인간스레기 되는 거야!” 영화의 배경인 1978년만 해도 대학 진학은 사회의 주류로 나아가는 절대적인 기회와도 같았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정신노동이 기계화되면서 생산성은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은 시들해지고 있음을 각종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언제까지 ‘입시 준비→대학→스펙 쌓기→취업’이라는 공식이 주

류와 비주류를 가르는 교범(敎範)으로 통할지도 의문이다. 발터 벤야민이 오드라텍을 ‘사물들이 망각한 상태 속에서 갖게 되는 형태’라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기이하기만 생각했던 오드라텍은 ‘인어’의 메타포(metaphor)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소설 속 화자의 격정과 달리, 스스로 인어임을 자처하는 현대의 자발적 인어 세대는 나름의 해법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어는 현 시대의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자발성과 영혼함을 바탕으로 창조적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월간인어’의 임집정(임영+편집장) 최서운 씨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노동 유연성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적은 사람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대다수가 인어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존감을 지키면서 즐거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조 두 례 광주전남지방방무청 운영지원과장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병역이행 명문가 찾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대 할아버지에서 3대에 이르기까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 및 사촌형제), 가문의 모든 남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이르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병역명문가 찾기 사업이 올해로 11년째에 이르고 있다. 대를 이어 현역복무를 성실히 실천한 병역명문가는 가문의 영예임과 동시에 국민 모두의 귀감이 된다. 병역이행 명

국가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감사와 존경을

문가에게는 인증서와 명문가 증서가 발급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병역이행 내용을 영구 게시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병적증명서상에 ‘병역명문가’로 표기 발급되며, 병역판정 읍부즈만, 병무홍보요원 등 다양한 병무행정 수행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병역명문가 본인에게는 희망가 병무청에서 취업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국내 일부 유적지·문화시설·병원·편의시설 등의 입장(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이용이 가능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체험 기회 부여, 은행금리 할인 등 지역별로 다양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현재 135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어 병역이행의 자랑스러움을 널리 전하고 있다. 최근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이 높아져 매년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도 늘어나고 병역명문가 혜택을 부여하는 기관과 단계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695가문이 접수되어 그

중 497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었고 병역명문가를 우대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전국적으로 593개에 이르고 있다. 올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우수가문 21가문에 대하여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방부장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조만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대에 이르는 가문 전체가 명예롭게 현역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존경과 감사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병역명문가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유하여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렇게 자발적 병역이행이 사회저변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이제 병역은 의무를 넘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자 필연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부족한 없이 자

유롭게 생활해 온 젊은이들이 일반 사회와 동떨어지고 통제된 군에서 2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군복무를 이행해야 하는 젊은 시절의 2년은 각자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이 시간을 병역이행에 할애하는 것은 나를 넘어 가족과 사회, 국가를 위한 가장 고귀한 희생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무청과 우리 사회가 함께 병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며, 병역을 담당하게 이행한 젊은이들의 용기 있는 애국심에 대한 격려와 감사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계속해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발굴 표창하고 선양함으로써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다. 병무청한 기관만의 행사가 아닌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자랑스런 행사로 거듭 발전하길 기대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정원 축소 지방대, 특성화에 명운 걸어라

대학 구조조정 불통이 결국 광주·전남지역으로 떨어졌다. 입학 정원 축소와 연계한 정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유단이다. 특성화 사업 대학 선정 결과,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 9개 대학의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이번 조치로 9개 주요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은 940명이나 줄어든다. 2017년까지 9개 대학에서는 2000여 명, 연평균 10%의 정원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는 지방대 전체 평균 감축률 8.7%를 웃도는 것이며, 수도권 평균 감축률 3.7%에 비해 3배나 많은 수치다. 입학학생 감소 대신 정부 지원을 받는 이번 특성화 프로그램에 지역 대학에서는 모두 30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특성화 사업단은 지방대학이 80개 대학의 265개, 수도권 28개 대학 77개다. 이처럼 지방 대학의 정원 축소가 훨씬 많아 수도권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정원 축소 대상 기준을 취업률을 중심으로 한 경제

논리에 따라 정하는 바람에 지방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감축 폭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허약한 경제기반만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원과 맞바꾼 특성화 사업을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남대는 연간 59억 원, 호남대 40억 원, 목포대 33억 원, 순천대 29억 원, 조선대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만큼 이를 잘 활용하면 보다 좋은 대학으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대학들은 이번 특성화 사업을 생존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 전력투구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리는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학의 유일한 살 길은 경쟁력 제고 뿐이다.

광주 기아차·삼성전자 물량 감소 우려 크다

광주에 생산기지를 둔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잇따라 해외공장 신설계획을 내놓자 지역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외공장 신설로 인해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이전 또는 물량 축소 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와 삼성전자는 해외공장 신설이 시장 확대와 생산시설 다양화를 위한 조치라 밝혔으나 경제라는 가변성을 고려할 때 마냥 믿기만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짓기로 하고 조만간 멕시코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MOU 체결 직후 착공에 들어가 2016년엔 연산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멕시코 공장이 지역이면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 중인 쏘울의 생산라인이 들어설 것이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갖는 노조 파업에다 국내 1인당 생산량이

해외공장보다 크게 떨어져 이를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경제계 일각에서 삼성전자 가 베트남에 대규모 가전공장 설립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광주사업장의 일부 생산라인 이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현재 여건상 라인 이전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상의 설명일 뿐이다. 광주경제는 금호타이어를 포함한 기아차와 삼성전자가 3대 축으로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이다. 만일 생산물량 감소가 현실화된다면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지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기업은 오랫동안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지역민에게 신뢰를 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광주시와 상공회의소 등도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1권 머리말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썼다. 유 교수가 답사기 2권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글은 정초 때의 문장가인 유한준이 당대의 수장가였던 김강국의 화첩 ‘석농화원(石農畵苑)’에 부친 발문에서 따온 것이다. ‘知則爲眞愛 愛則爲眞看’인데, ‘알면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진실로 보게 된다.’ 정도가 될 것이다. 널리 알려진 이 글은 그러나, 3차원 공간에서 오감을 동원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우주인-외계인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4차원 이상의 다차원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3차원 구조’를 지닌 곳이다. 그런 곳에 사는 우주인은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차원 세계의 우주인들은 우리에게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주류 물리과학계에서 세상은 해석하는데 활용되는 M이론이나 끈 이론은 ‘우주가 10차원 또는 11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사는 세상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무수한 우주들이 서로 겹쳐있거나 혹은 다른 공간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렇다면, 이들 서로 다른 우주의 주민들이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우주가 존재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 공간에 더 높은 차원의 공간이 중첩되어 있을 지라도 ‘3차원 세상에 적합한 오감뿐인’ 인류로서는 다른 세계의 존재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해석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77일째다. 누가 알겠는가.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숨진 아이들도 또 다른 차원에서, 천 개의 바람으로 변해 우리 곁에 머물며 사랑하는 이들의 이쁜 가슴을 어루만지고 날아가는 지를. 그 아이들이 정병 이대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또 다른 우주에서 즐거이 지내다 언젠가, 사랑하는 이들과 만나 반갑게 포옹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싶다. /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

천 개의 바람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